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 등 부

소 년 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7월 교육 내용	04
☺ 7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7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English Bible Study	28
☺ 7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 7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 7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8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9
☺ 7월 편편 플레이	
빈칸채우기	70
가로세로퀴즈	71
☺ 위드큐티스티커	72
위드포토	73
☺ 7월 추천도서	74
☺ 7월 교육활동지	75



7월 교육내용 성령님은 누구신가?

암송 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첫째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둘째주♥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셋째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로마서 8장 26절)

*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넷째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섯째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예요.

실천 내용

1.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2.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위드

WIT

7월 첫째 주
2017년 7월 2일~8일



Memory Time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 주

♥ 주제 :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 암송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성경 이야기 :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2:1-4

♥ 오늘의 포인트 :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오순절 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3절)
- ②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4절)

★ 교육 활동 - “동서남북에 전해요”

준비물 - 색종이, 필기도구

- ① 색종이로 동서남북을 접은 뒤, 겉면에 각각 ‘동, 서, 남, 북’이라고 써주세요.
- ② 안쪽 면에는 <보기>에 있는 나라들 중 8개의 나라를 골라서 적어주세요.
- ③ 둘 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이 먼저, ‘동, 서, 남, 북’ 중 하나를 부르고 숫자를 말하면 (ex. 동쪽으로 3번), 상대방이 자신의 동서남북을 숫자만큼 움직인 뒤 걸린 나라의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를 큰 소리로 읽어요.
- ④ 성령님이 임하시자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1:4-8)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어요.

제자들이 유대명절인 오순절 날 함께 한곳에 모였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신들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우리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Pray 성령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2:24-33 “교만함을 회개한 히스기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4.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 주셨다.
25.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26.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27.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28.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 떼를 먹였다.
29.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30. 위쪽 기혼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 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징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영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with
관찰

1.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25절)

2. 주님께서는 교만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26절)

“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하지 않으셨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에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게 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히스기야의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었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매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3:1-9 “**믿음의 대를 잊지 못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열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2.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3.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4.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 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5.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6. 아들들을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문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7.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8.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9.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풍속 :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with
관찰

1. 므낫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3절)

- ① 열두 살에 왕이 되었어요.
- ② 신다섯 해 동안 다스렸어요.
- ③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 ④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어요,
- ⑤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with
생각

히스기야에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쳤어요. 왕이 이렇게 행동하자 백성들도 왕을 따라 했어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로 잡아놓은 것을 망쳐 놓았어요.

with
결심

므낫세는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원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3:10-25 “므낫세의 회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11. 앗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12.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13.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 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14. 이런 일이 있던 뒤에, 므낫세는 '다윗 성' 밖, '기혼 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15.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16.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17.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므낫세는 결국 무슨 일을 당하게 되었나요? (10-11절)

“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으로 끌어들였다.”

2. 고통을 당하던 므낫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12절)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해졌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나쁜 행동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고, 결국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던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만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므낫세는 성전 안에 세웠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어요.

with
결심

많은 나쁜 일을 저지른 므낫세였지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쳐주셨어요. 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가득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4:1-13 “나라를 깨끗하게 한 요시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한해 동안 다스렸다.
2.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걸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3. 요시아는 왕이 된 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십이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4.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뿔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6.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7.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뿔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8.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열여덟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9.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 둔 것이었다.
10.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요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3절)

- ① 여덟 살에 왕이 되었어요.
- ②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 ③ 매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 ④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었어요.
- ⑤ 사람들에게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했어요.

2. 요시아는 나라를 깨끗하게 한 뒤에 또 무엇을 수리하게 하였나요? (8절)

“□□□□의 □□□□을 수리하게 하였어요.”

with
생각

요시아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없앴어요. 요시아는 나라를 깨끗하게 한 뒤에,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어요.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 헌금을 하였고 모든 일은 잘 진행되었어요.

with
결심

어린나이 때부터 자라갈수록 더욱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요시아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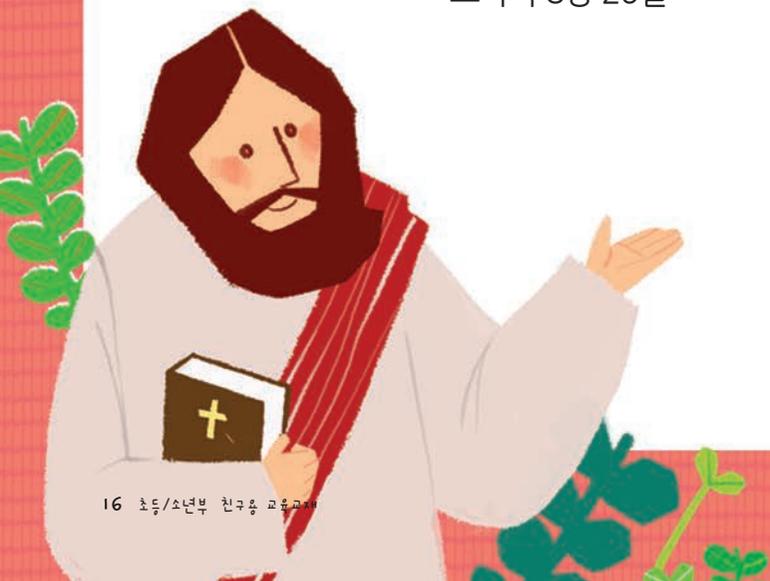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 : _____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위드

WITR

7월 둘째주
2017년 7월 9일 ~ 15일



Memory Time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

말씀
재주

♥ 주제 :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 암송구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

♥ 성경 이야기 :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 ▷요한복음 14:26

♥ 오늘의 포인트 :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26절)
- 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나요? (26절)
- ③ 본문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6절)

★ 교육 활동 - “책갈피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 가위, 손코팅지

- ① 활동지를 가위로 오려보세요. 먼저 큰 테두리를 따라 오리세요. 두 번째는 가운데 흰색 부분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흰색 공간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 ② 손코팅지를 활동지 위에 붙이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가운데 부분도 오려주세요.
- ③ 책갈피가 완성되었어요. 성경을 읽기전 책갈피에 적힌 기도문으로 기도해보세요.
- ④ 말씀을 읽기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활동을 마쳐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서 배워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시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선생님 없이 홀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실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푼 경험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떠했나요?

Pray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4:14-19 “율법책이 나타났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16.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17.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18.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19.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애통하다 :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슬피 울부짖다. 또는 슬프게 한탄하다.



with
관찰

1.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14절)

2.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을 들은 요시야가 애통하며 자기의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아래에 써봅시다.

with
생각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오래전 율법책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발견된 것이었어요. 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전해주었고, 서기관은 요시야 왕에게 보고했어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조상들의 잘못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with
결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4:20-33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 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쭙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생략)
-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았다.
-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 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에게 크게 읽어 들려 주도록 하였다.
-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율법을 들은 요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21절)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2. 모든 백성 앞에서 요시아는 율법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33절)

“...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께 하고 떠나지 .”

with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마음 아파하며,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이지요. 그 결과,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회개란, 잘못된 것을 니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 보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삶에서 고쳐나가길 기도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5:1-19 “첫번째 개혁: 유월절”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2.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했다.
(생략)
7.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8.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내놓았다.
9.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이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오천 마리와 소 오백 마리를 내놓았다.
10.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생략)
16. 이와 같이, 그 날에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17. 그 때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18.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 본 왕이 없었다.
19.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열여덟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유월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

자원 :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섬

무교절 : 유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수난과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는 날

with
관찰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 요시아의 첫 번째는 “유월절” 지키기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어사전을 참고하여 스스로 써주세요.

2.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아는 어떻게 하였나요? (7절)

“요시아는 자기가지고 있는 짐승 떼 가운데서, 과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주었다.”

with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했던 요시아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힘썼어요. 가장 먼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어요. 요시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뿐만이 아니라, 요시아는 혹시나 제물이 없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을까봐, 개인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러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with
결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5:20-27 “요시아의 죽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 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여서 멈추시오."
-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 그 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 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갈그미스 :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있는 고대 성읍. 이곳에서 이집트 느고 왕과 느부갓네셀 왕이 전투를 벌임
전령 :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with
관찰

1. 요시아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인가요? (20절)

“...이집트의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남 유다까지) 올라왔다.”

2. 이집트의 느고 왕은 전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요시아가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with
생각

남 유다 요시아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 느고 왕이 요시아가 있는 남 유다 땅까지 쳐들어 온 것이었어요. 물론, 느고 왕은 남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닌, 바벨론과의 전투를 위해서 유다 땅에 온 것이었어요. 느고 왕은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느고 왕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 결과 전투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with
결심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나의 기도 : _____

ENGLISH BIBLE STUDY



사무엘상 17:34-47 / 1 Samuel 17 38-47 (NIRV)

Uniqueness—discovering who God made you to be so you can make a difference.
특색·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는지 발견하는 것.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35. 저는 곧바로 뒤쫓아 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37.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 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38.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39.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40.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릿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41.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42.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흉안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43.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6.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

겠다. 47.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1 Samuel 17 38-47 (NirV)

34. But David said to Saul, "I've been taking care of my father's sheep. Sometimes a lion or a bear would come and carry off a sheep from the flock. 35. Then I would go after it and hit it. I would save the sheep it was carrying in its mouth. If it turned around to attack me, I would grab its hair. I would strike it down and kill it. 36. In fact, I've killed both a lion and a bear. I'll do the same thing to this Philistine. He isn't even circumcised. He has dar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to fight him. 37. The Lord sav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He saved me from the paw of the bear. And he'll save me from the powerful hand of this Philistine too."

Saul said to David, "Go. And may the Lord be with you." 38. Then Saul dressed David in his own military clothes. He put a coat of armor on him. He put a bronze helmet on his head. 39. David put on Saul's sword over his clothes. He walked around for a while in all that armor because he wasn't used to it. "I can't go out there in all this armor," he said to Saul. "I'm not used to it." So he took it off. 40. Then David picked up his wooden staff. He went down to a stream and chose five smooth stones. He put them in the pocket of his shepherd's bag. Then he took his sling in his hand and approached Goliath. 41. At that same time, the Philistine kept coming closer to David. The man carrying Goliath's shield walked along in front of him. 42. Goliath looked David over. He saw how young he was. He also saw how healthy and handsome he was. And he hated him. 43. He said to David, "Why are you coming at me with sticks? Do you think I'm only a dog?" The Philistine cursed David in the name of his gods. 44. "Come over here," he said. "I'll feed your body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45. David said to Goliath, "You are coming to fight against me with a sword, a spear and a javelin. But I'm coming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who rules over all. He i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He's the one you have dared to fight against. 46 This day the Lord will give me the victory over you. I'll strike you down. I'll cut your head off. This day I'll feed the bodi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Then the whole world will know there is a God in Israel. 47. The Lord doesn't rescue people by using a sword or a spear. And everyone here will know it.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He will hand all of you over to us."

ENGLISH BIBLE STUDY



Vocabulary

Curse- 저주하다.

Rescue- 구원하다.

Belong- 속하다

Javelin- 투 창(던지는 창)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45. David said to Goliath, "You are coming to fight against me with a s_____, a s_____ and a j_____. But I'm coming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who rules over all. He i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He's the one you have d_____ to fight against.

47. The L____ doesn't r_____ people by using a sword or a spear. And everyone here will know it. The battle b_____ to the Lord. He will hand all of you over to us."

Interpretation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독특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Unique)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전사처럼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작은 소년인 다윗이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Application

Like David, God made you special, too. God has something in mind just for you to do and He is preparing you for that good work. He does not want you to try and be someone else.

No one in the entire world is like you. No one looks exactly like you. No one has the same talents. No one has the same shared experiences. When you realize this truth, you can make a big difference, just like David did.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여러분과 완벽히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예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Ephesians 2:10 에베소서 2장 10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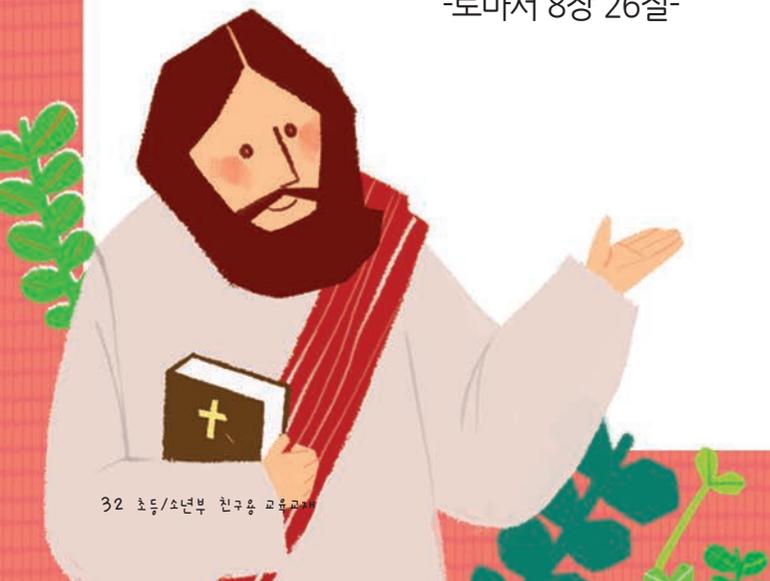
“We are God's creation. He created us to belong to Christ Jesus. Now we can do good works. Long ago God prepared these works for us to do.”

- Ephesians 2:10, NIRV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익드



7월 셋째주
2017년 7월 16일~22일



Memory Time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셋째주

♥ 주제 : 성령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 성경 이야기 :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로마서 8:26-27

♥ 오늘의 포인트 :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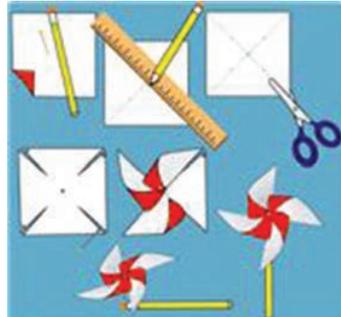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26절)
- 2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27절)

★ 교육활동 - “나의 약함을 성령님께 맡겨요!”

준비물 - 활동지(별지), 펜, 색종이, 수수깡, 핀

- 1 색종이에 요즘 내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을 적어요.
- 2 그것을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보아요.
- 3 바람개비 만드는 법을 참고하여 바람개비를 만들어요.
- 4 “나의 약함을 성령님께 맡겨요!”라고 외치며, 바람개비를 바람에 날려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혜사’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거나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고 위로자이며 중보자이기도 해요.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힘들 때,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Pray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성령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6:1-8 “유다의 마지막 왕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2.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세 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3.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4.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아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5. 여호아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6.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7.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도 들여놓았다.
8. 여호아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폐위 :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

조공 : 예물, 바치는 물건이나 돈

도성 :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도, 왕이었던 중심지



with
관찰

1. 이집트왕은 누구를 폐위시켰나요? (3절)

예루살렘에서

2.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8절)

과 유다

with
생각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신당에 둘 뿐 아니라 많은 악을 행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유다 말기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판단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6:9-16 “하나님의 경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단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10. 그 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1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단스렸다.
12.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14.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15.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16.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특사 :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

조롱 :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

with
관찰

1. 여호야킨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구도 가져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그 해 봄에,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킨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 갔으며, 여호야킨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2.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던 사람들(그들)은 누구입니까? (14-16절)

with
생각

남유다 마지막 두 왕은 여호야킨과 시드기야였어요.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특별히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바빌론에게 배반했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죄를 저지르고, 예언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with
결심

예언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바로 잡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악을 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6:17-23 “남유다의 멸망”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18.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 갔다.
19.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20.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로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21.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중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살육: 사람을 마구 죽임

with
관찰

1. 아래의 내용 중 틀린 말은 무엇인가요? (17-19절)

- 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서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
- ② 바빌로니아 왕은 늙은 사람과 병약한 사람은 살려주었다.
- ③ 왕은 성전 안에 기구들과 왕과 신하들의 보물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 ④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다.

2. 주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21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다를 넘겨주었어요.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성전의 보물들과 백성들의 보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모든 그릇을 부숴 버렸어요.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서 노예로 삼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with
결심

예언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 했던 백성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겨두고, 실천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1:1-4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3.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4. 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원: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나서는 것



with
관찰

1. 고레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절)

- 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다.
- ②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시키셨다.
- ③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써서 돌렸다.
- ④ 고레스는 예레미야와 친척이다.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절)

“... 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꼭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마음이 움직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했고, 유다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친구가 되기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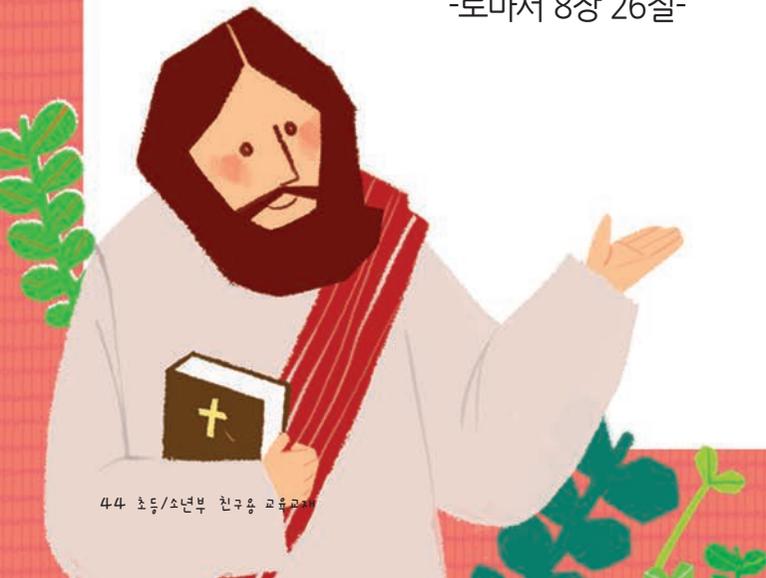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게요.
나의 기도 : _____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익드

WITIA

7월 넷째주
2017년 7월 23일~29일



Memory Time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네
사랑해주

♥ 주제 : 성령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3

♥ 성경이야기 :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에베소서 4:1-4

♥ 오늘의 포인트 :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3절)
- ②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절)
- ③ 그리스도의 몸, 성령, 소망은 각각 몇 개인가요? (4절)

★ 교육활동 - “여.름.성.경.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1절)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된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서로서로를 예의바르고 겸손하게 대해야 해요. 또한,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화평을 위해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성령님,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1:5-11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 그 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6. 이웃 사람들은, 자원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7.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8.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알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게 하였다. 넘겨 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9. 개요, 칼이 스물아홉 자루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사백열
10. 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천 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오천사백 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11. 잡혀 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채비: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물품: 물건

포로: 사로 잡은 적

with
관찰

1.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지으려고 하였나요? (5절)

“그 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2.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물품들을 돌려주었던 당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8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베냐민 가문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어요.

with
결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직접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모습을 본 받아 저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에스라 2:1-35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2.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와와 르훔과 바야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요,
4.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요,
6.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이요,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8. 샷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요,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요,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요,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요,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요,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이요,
14. 비그와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요,
15. 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요,
16.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17.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요,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요,
20. 김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무슨 왕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나요? (1절)

“바빌로니아 왕 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2.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과 예수아와 가 있었나요? (2절)

with
생각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에요. 또한, 적들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17.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2:36-6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6.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38. 바스홀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다.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41.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이요, (중략)
58.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다.
59.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60.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육백오십이 명이다.
61.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교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래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래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 받은 사람이다.
62.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63.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임**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우림과 둠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

with
관찰

1.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명어요.”

2.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41절)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 자손이 명어요.”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보내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 제사장들과 찬양 드리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17.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2:64-70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64.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다.
65.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다.
66. 또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오,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오,
67.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오,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이다.
68.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69. 저마다 힘 자라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육만 천 다릭, 은이 오천 마네, 제사장의 예복이 백 벌이나 되었다.
70.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원: 어떤 일을 스스로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것

기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돈



with
관찰

1.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64절)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명이다.”

2. 유다 백성들이 자원예물을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68절)

with
생각

성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하였어요.

with
결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과 제물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힘을 합쳤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보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익드

WITR

7월 다섯째주
2017년 7월 30일~8월 5일



Memory Time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다섯째 주

♥ 주제 : 성령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16-17

♥ 성경이야기 :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고린도전서 3:16-17

♥ 오늘의 포인트 :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인가요? (16절)
- ②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있을 까요? (16절)
- ③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 교육활동 -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 ① 활동지 맨 위에 ‘_____ (이)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에 자기 이름을 적어 보세요.
- ② 성전 안에 2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 칸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세요.
- ③ 밑에 칸에는 성전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④ 적은 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나누면서 그림 밑에 000에 자기 이름을 넣고 ‘000 안에 성령님이 계시요.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읽으며 활동을 마쳐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잔짜주

우리는 각각 장소에 맞는 활동들을 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죠. 성전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17절).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나쁜 말과 행동을 하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성전 된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이예요. 성전인 우리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보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세워나가요.

토론하기

Q1.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Pray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3:1-6 “예배에 힘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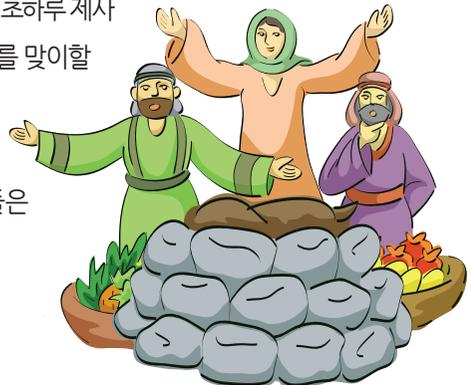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3.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4.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5.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6.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다시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1-3절)

모세의 에 규정된 대로 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을 쌓았다. (2절)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을 세우고,

거기에서 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3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백성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힘썼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3:7-13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7.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샅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옹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8.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 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9.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10.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11.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12.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13.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 말씀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이태: 두 해

화답: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with
관찰

1. 일꾼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에 제사장들과 아삽자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 연결해주세요. (10-11절)

- | | |
|----------|-------------------|
| 제사장들 · | ·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다. |
| 아삽 자손들 · | ·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 온 백성 · | · 자바라를 들었다. |

2.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with
생각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였고, 온 백성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늙은이들은 이미 70년 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알기에 지금 성전기초가 너무 초라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름답던 성전이 무너진 사실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with
결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17.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4:1-5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2.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앗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यो.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यो.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यो."
4.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5.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사기: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고문관: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을 맡은 관리

매수: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일

with
관찰

1.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2절)

“도 당신들과 함께 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2. 그러자 스룹바벨과 그 밖에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15절)

with
생각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자신들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게 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속임수였어요.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적들은 바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자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며 끈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에스라 4:6-16 “방해꾼이 보낸 거짓 편지”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6.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7.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 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8.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9. 그 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귀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고발 : 고하여 하소연함,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일

상소문 :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



with
관찰

1.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6절)

2.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8절)

사령관과 서기관

with
생각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이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던 고레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아닥사스다라고도 불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섰을 때였어요. 방해 세력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거짓말로 쓴 긴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했어요.

with
결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막으려는 악한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때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해야해요.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제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_____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시편 139편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하나님이 우리가정을 지키심을 이야기해주세요.



[시편 139편] -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 1 주님, 주께서 나를 살살이 살피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 2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 3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 4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 5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 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 6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 7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 치겠습니까?
- 8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 9 내가 저 동백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 10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 11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 12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OO아(야) 잘 잤니?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OO(이)의 삶을 계획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OO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하루를 보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자꾸나.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한 해를 돌아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아래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평화의 기도 - 프란체스코

OO(이)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엔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어둠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빈 칸 채우기

1. 다음 그림에서 단어를 찾아 로마서 8장 26절을 완성시켜 보세요.



이와 같이 ()도 우리의 ()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 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가로 세로 퀴즈

1)					
2)	2)				
					3)
			3)		

세로퍼즐

- 1)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낼 이것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15:26)
- 2)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 3)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출12:11~14)

가로퍼즐

- 1) 실로암의 뜻은 OO을 받았다는 뜻이에요.(요9:7)
- 2)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 예수께 나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 일까요? (눅 17:16)
- 3) 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날이에요.(행2:1~4)

정답

ㄹ	ㄹ	ㅅ		ㅇ	
ㄱ				ㄴ	
ㅈ				ㅊ	
		ㅊ	ㄹ	ㅊ	ㅊ
					ㅊ
				ㅊ	ㅊ

QT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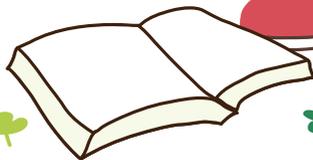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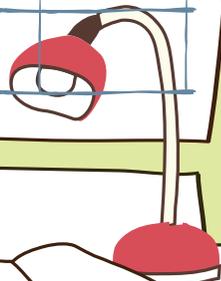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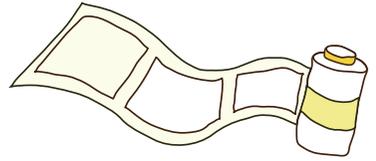


Bible
study!

GOD'S TIME	1	2	3	4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우드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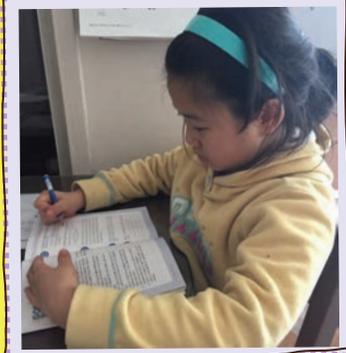


초등1부



3-4 문준혁

초등1부



4-3 김경민

초등2부



3-13 박서희

소년2부



5-12 정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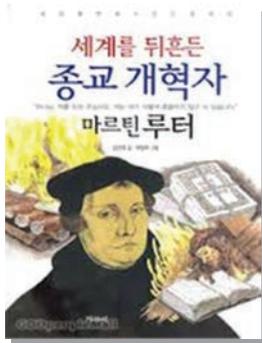


7월

제 목 :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글: 김선정, 곽정우

출판 : 겨자씨



"하나님, 나를 도와 주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시절에 루터는 성경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용감하게 잘못된 제도와 맞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제도와 맞서 싸운 소년 다윗이었지요.

마지막 재판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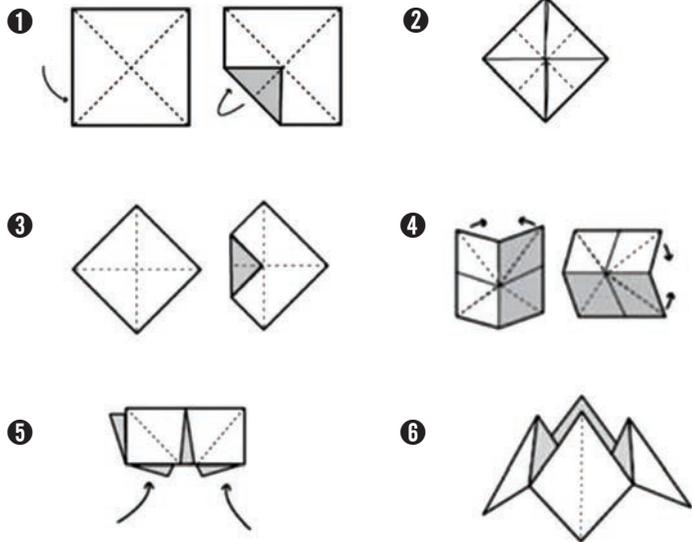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루터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지

7월 첫째주(7/2)

- 동서남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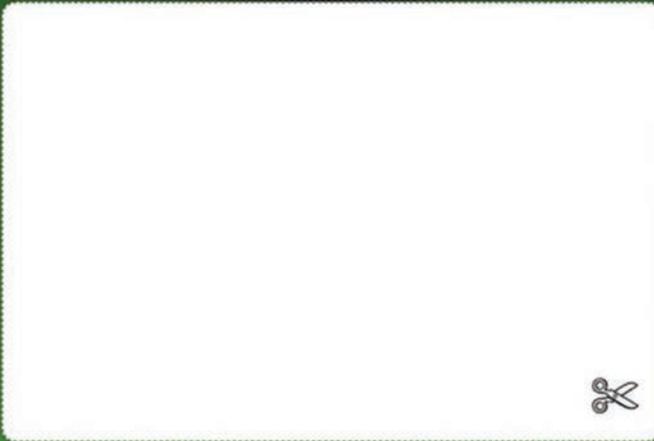
	Croyez en Jésus. (크로이예 언 제쥬)		Glaube an Jesús. (글라우베 안 예쥬스)		Believe in Jesus. (빌리브 인 지저스)
	イエスを信じて ください。 (예수사마오 신 지떼 구다사이)		相信耶。 (니 시양신 예수)		คุณเชื่อในพระเยซู (쿤 츠언 니 프라 예수)
	Maniwala ka kay Hesus. (마니왈라 카 카이 헤수스)		Percaya kepada Yesus. (퍼르차야 카 바다 예수스)		Πιστ ψτε στον Ιησο (피스테프테 스톤 이소우)
	sa'ya inanin. (이사야 이나는)		Credere in Gesù. (크레데레 인 제수)	내가 원하는 나라	검색해보아요. (구글번역기)



- 책갈피 만들기 -

말씀을 읽기 전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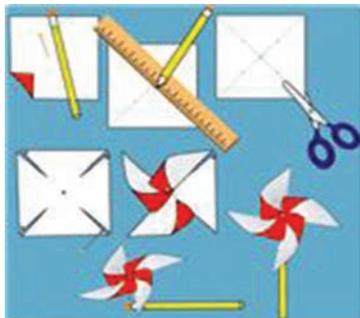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추사 읽는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셋째주(7/16)

- 나의 약함을 성령님께 맡겨요 -



'바람'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바람개비를 만들어
 요즘 고민과 어려움을 적어 바람에
 날려 보도록해요.

